

52번째, 농기구이야기

곡식을 담아 두는 저장고
‘뒤주’



(뒤주 © 농업박물관)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2. 1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뒤횼의 개념

뒤횼은 수확한 곡식을 담아두는 저장고다. 쌀을 담아 두는 쌀뒤횼과 벼를 보관하는 나락뒤횼이 있다. 적은 것은 50리터에서 큰 것은 200리터의 쌀을 담을 수 있으나, 대부분 한 가마(80kg)짜리가 많다. 대청 또는 부엌에 놓고 사용하는데, 옷칠을 하거나 자개를 입히거나 장식을 다는 따위의 치장을 하기도 한다. ‘쌀궤’가 하기도 하나 주로 ‘뒤횼’라 부른다.

2. 뒤횼의 종류

쌀뒤횼은 통나무로 만든 것과 나무로 짠 것이 있다. 통나무는 <사진 1>과 같이 속을 파내고 위와 아래를 따로 널빤지로 막고, 윗부분은 다시 반으로 잘라 한쪽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낱알을 넣고 퍼내도록 한다. 나무로 짠 것은 <사진 2>와 같이 네 기둥을 세우고 벽과 바닥을 널빤지로 마감하여 공간을 만들고 머리에 두 짝의 판을 놓는다. 하나는 고정되고, 하나는 앞쪽으로 열고 닫으며, 여닫는 데는 자물쇠를 채운다. 나락뒤횼은 야외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곡식을 담아 두기 위하여 대나무로 엮어 둘러막고 이엉으로 지붕을 덮었다.<사진 3> 나락은 쌀을 뜻하는 말로 경남, 전라, 충청지역에서 주로 쓰인다. 나락뒤횼은 지역에 따라 나락두지(경상남도 영산), 두대통·벚두지(전라남도 보성), 독집(전라북도 진안)이라고 부른다.



사진 1. 통나무로 만든 뒤횼



사진 2. 나무로 짠 뒤횼(©농업박물관)



사진 3. 나락뒤횼 (©농업박물관)

3. 뒤주와 사도세자

보통 인터넷 검색창에 '뒤주'에 대해서 검색하거나 질문을 하면 '사도세자'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사도세자와 뒤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사도세자(1735~1762)는 조선 21대 왕인 영조(英祖, 1694~1776)의 아들이자, 조선 22대 왕인 정조(正祖, 1752~1800)의 아버지이다. 세자를 못마땅해 하던 영조가 세자를 '뒤주' 안에 가두어 8일 만에 굶어 죽게 했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 정치적 희생량이 되었던 사도세자가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곳이 바로 '뒤주'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김광언, 1969,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한국농기구도감』